청정대기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광주서본격추진

총사업비 493억원 빛그린산단 3만여㎡ 부지에 조성 부지 매입 완료…기본·실시설계·기술개발 등 기대

세계 녹색산업시장을 선도하고 한국판 그린뉴 딜을 이끌어갈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 올해부터 광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빛그린산단 내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가 지난해 12월 부지 매입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공사비 142억원 이 환경부 본예산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사업비는 2020년 20억원, 2021년 146억원에 이어 올해는 1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는 국내 미세먼지 주 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산업, 수송분야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발물질 감소를 위한 주요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시설을 집적화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산업, 수송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과 측정기기 실증단지 등 육성허브를 구 축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개발 기술의 제품·산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2020년 3월 그린뉴딜 핵심 프로젝트인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2023년까지 빛 그린산단 내 3만㎡(493억원, 전액 국비) 규모로 조성키로 하고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진행

하고 있다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93억원이 투입될 예 정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광주 유치와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 행 정절차를 지원했으며, 2020년 4월부터 11월까 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 2807명, 준비단계 749억원, 운영단계 2349억원 등 309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미세먼지를 포함해 대기산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부품·장 비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관련 산업 육성을 위 한 체계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며 "청 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 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진기자

전남농업기술원, 아열대과수 '레몬' 소득화 연구 본격화

꽃눈 관리 요령 등 맞춤형 컨설팅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유망 아열대 과수로 각광받고 있는 '레몬' 소득화 연구에 본격화 하 고 나섰다.

22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국내 레몬 재 배면적은 14.2ha로 연간 생산량은 약 340t 정도다. 이 중 전남의 재배면적은 0.7ha로 5%를 차지하고 있다.

레몬은 구연산과 비타민C 함량이 풍부해 대부분 과즙을 이용하며 면역력 증진, 소화촉진에 효능이 있고, 해독작용과 다이어트에 이용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산 레몬 판매가는 kg당 5000원으로 수 입산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특히 국내산 레몬은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 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국내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입 대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에서는 지난해부 터 전남 레몬재배 소득화를 위한 농가의 재배 실태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결실을 위한 꽃눈 관리 요령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내·외 유망한 레몬 재배 품종을 다양하 게 수집하고 이들에 대한 지역 적 응성 및 시기별로 생산되는 과실 품질조사를 실시해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 이다.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 주영 연구사는 "기후온난화에 따 른 새로운 틈새소득 작물로 레몬

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재배 매뉴 얼을 조기에 발간해 재배농가의 소득화를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옥기자

광주도시공사·광주환경공단, 고객만족도 나란히 전국 1위

행안부 2021지방공기업 만족도 조사 도철, 90.71점…전국 6개 공사 중 2위

행정안전부의 2021년 전국 지방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광주도시공사와 광주환경 공단이 각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37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등 5개 단계별 만족도를 평가한다.

행안부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공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와 면접을 통해 진행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종합만족도 89.37점으로 전

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운영기관 중 1위를 차지했고, 광주환경공단은 79.43점으로 전국 6개 광역환경공단 중 1위를 기록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역시 종합만족도 90.71점

을 획득해 전국 6개 공사 중 2위로 상위권 성적을 거뒀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상수도사업본부도 지난해보다 고객만족도가 상승했다.

박갑수 시 예산담당관은 "지난해 12월 한국 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고객만족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 시정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6건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전남도는 순천 송광사 목조아미타여래좌 상, 담양 몽한각 소장 숭례문과 후적벽부 목 판 등 6건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천 송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유형문 화재 제349호)은 조성 발원문이 확인돼 조 성 연대(1640년·인조 18년), 조성 동기, 참 여 인물, 조각승 등이 정확히 밝혀져 불교 조각사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받는다. 17 세기 중반 불상과 양식이 유사하고 보존 상 태도 양호하다.

담양 몽한각 소장 숭례문과 후적벽부 목 판은 양녕대군의 친필로 전해진다. 후손들이 서울 지덕사 소장본을 모본으로 해 1887년(고종 24년) 9월 몽한각에서 다시 판각한 인출본 목판으로 서예사 연구의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탁월하다. 국보인 서울 숭례문의 현판보다 자형과 필획의 균형감이 높다. 초서의 정형성을 탈피해 자유분방하면서도 기운이 약동하는 서격으로 그 가치가 매우

이번에 함께 지정된 곡성 관음사 동종과 광명대는 2013년 관음사 경내 발굴조사에 서 확인됐다. 12~13세기 원통전에서 사용 한 불구(佛具)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양식 의 특징이 잘 나타나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 할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곡성 명산정사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1532년(중종 27년) 경상도 팔공산 은해사 에서 왕실본을 저본(문서의 초벌 원고)으로 삼아 복각 간행한 판본이다. 조선 전기 불교 의례(수륙재)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또한



판각 시기(가정 11년), 화주, 각수 등이 정확히 확인 되고 있어 임진 왜란 이전 간행한 불서 판본 연구의 참고가 되는 귀중 본으로 지정 가치 가 높다.

해남 태영사 석

조석가삼존불좌상은 총 3구로 조성 발원문이 확인돼 조성 연대(1724년·경종 4년), 조성 장소, 참여 인물, 조각승 등이 정확히 밝혀졌다. 조선 후기 석조불상으로는 희귀해불교 조각사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받는다.

광양 최산두 종가 고문서는 조선 전기 문 신이자 학자인 신재 최산두와 그의 손자 최 종원과 처, 증손 최득린, 현손 최호립 등 4 대에 걸친 것으로, 관직 임명 제도사 이해에 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보존상태 가 양호하고 일부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기 사에서도 확인돼 지정 가치가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 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규 자원 발굴과 지정 확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지정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보성 문재도 관련 고문서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앞으로 예 고기간인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